

## 시론 02

건축사, 이제는 향토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 신진에게 듣는다 · 학생기고 03

log = 기록, 나의 지난 3년을 log하다

학생기고 \_ 디자인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방식 운영  
전북대 한옥사업단, 러시아에 한옥 수출길 열어  
전라북도 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 광주 지역 뉴스 06-07

광주건축사회 제18대 회장선거 및 2024년도 감사선거 후보자 최종등록  
광주건축사회, 제3차 건축 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광주 동구청, 경관계획 중간 보고회 개최

## 전남 지역 뉴스 08-09

화순군, 건축사 간담회 개최  
해남군,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  
전라남도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 종합뉴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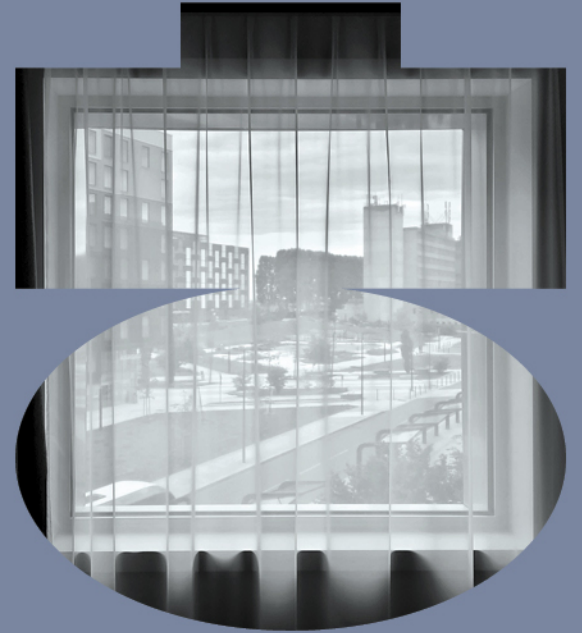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김재록 후보 당선  
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사례집 개정 배포  
행복청, 국내 최초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 착공

## 설계경기 11

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 건립공사 건축 설계공모

##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니켈세케이 미래를 짓다  
한 장의 사진 \_ 커튼이 드리운 호텔방 창문  
한 편의 시 \_ 인생의 여정



#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02.17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건축사, 이제는 향토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로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 교수, 출강
- 전국 사찰, 고택, 향교, 관아를 15여 년 간 300여 곳 답사함
- 국립 순천대 평생교육원에서 한국학, 전통문화 탐방지도사 과목을 강의
- 전남도 한옥자문위원, 순천시축제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전문위원
- 논문 : 건축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2002, 순천대)
- 저서 : 『좋은한옥』 (2012, 전남도청 공저) 『다시읽는 순천인문학』 (2018, 늘보기책)

필자는 '국립순천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문화탐방지도사" 자격 취득과정을 강의한다. 이 자격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하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수업이다. 이 교육과정에 중요한 분야가 향토역사·문화이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향토역사와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각종 서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중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심이 없으며 향토역사에도 무관심하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주도해 가는 "지역문화재단"이 곳곳에 생겼다. 지역의 향토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예술인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으로 콘텐츠 발굴사업이나 출판지원사업도 적극적이다. 필자도 2022년 동아리 소속으로 '순천문화재단'에서 발주한 콘텐츠 발굴사업에 참여했다. 판소리 동편제 관련 '연구용역사업'이었는데, 다른 팀들도 각자 콘텐츠로 동시에 완수했다. '용역평가회' 때 내용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판이 자라났다. 따라서 지금은 각 지역마다 관 주도이긴 하나, 향토역사·문화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다행히도 빛을 잃어가던 향토문화가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해 중앙문화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지방문화시대를 예고하는 이러한 새바람은 향토문화의 자생능력회복과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문화 활성화 시책이 많이 뒷받침된 듯하다. 국가에서 지역 우수축제를 지원한다든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예술현상은 서울에 집중되어 서울과 지방의 문화격차가 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문화는 중앙문화에 종속적인 성격을 띠고 각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는 차츰 소멸되거나 남아 있는 것조차도 골동품적인 가치로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침체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정부문화정책의 큰 목표로 내세워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시책들은 지방의 문화시설을 대폭 늘려 문화공간을 확보해 지방의 특장문화를 육성하는 등 지역문화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헌하기는 했으나, 관 주도형이라 모든 면에서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차츰 지원에 의한 민간주도로 바뀌어가면서 융통성이 생겼다.

지난 40여 년 전만해도 경제개발은 물론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예속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오죽하면 '서울공화국'이란 말도 생겼다. 한국인은 고향사랑이 강한데, 지역문화의 상실시대를 살아왔던 셈이다. 특히 군사정권시절에는 더했다. 그러니 정치·경제·문화·예술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5공화국 군사정권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각종스포츠와 경제로 민심을 돌리려는 시도가 보

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은 뒤로 한 채 눈에 보이는 동양최대, 세계최초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을 소외시켰다. 점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강력한 중앙집중현상 속에서 형성된 획일적인 문화현상을 지양하고, 내 고장의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차츰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지방분권시대라는 큰 딜레마에 빠졌다. 바로 예산의 문제에 부딪혔다. 국가의 문화는 하나의 도시문화로 대표될 수 없다. 각 지방의 다양한 문화가 존속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 나라 문화는 탄력성이 있고 저력이 생긴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는 한국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초석이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어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가 됐다. 중앙문화가 정체되어 모순이 생기면, 지방문화는 항상 대체세력으로 받쳐주면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 잡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최근 지방문화 활성화 태동은 정부의 획기적인 문화정책지원이 큰 전기가 되었고, 민간차원에서 각 지방의 잠재적인 문화역량을 되살려 내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전통예술을 지켜온 향토예술인의 열정과 집념이 위기에 처한 지방특장문화를 정착시켜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각 지방대학에서도 향토사연구에 동참을 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향토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민은 물론, 고향을 지키고 있는 향토문화예술인의 분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들의 역량이 지역예술단체에도 미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축도 이제는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단순하게 공학적으로만 풀어가갈 때 딱딱함만이 존재한다. 물론 건축사라는 직업이 예술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딱딱함을 부드러운으로, 공학적인 부분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풀어갈 때, 건축도 또 다른 예술적 매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나 그림은 싫으면, 듣지 않거나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건축물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살 수 없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시민의 정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건축물이 순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역기능을 하느냐이다.

그래서 건축사들의 설계는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그 시대의 흐름이나 건축주의 성향을 핑계 삼아 설계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의 구축은 건축사의 책임이다. 이제는 건축사도 향토역사·문화에 관심을 두고 재능기부나 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향토역사·문화의 스토리텔러나 지역의 현안사업 또는 문화재보호·보존에 적극 참여하여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지역·지방에서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4년도 | 2월 교육일정 안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 공사감리)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24년도 공사감리 전문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 (1) 교육종류 및 인정시간 : ① 전문교육 4시간 / ② 윤리교육 1시간  
(2) 신청기간 :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www.kiraeb.or.kr](http://www.kiraeb.or.kr))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인정 시간	교육비	인원
① 2월 26일(목) 14:00~18:00	전문 교육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정창호 건축사 (주)에코 건축사사무소	광주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전문 교육 4시간	60,000원	150명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이상열 건축사 (주)하제 건축사사무소				
② 2월 28일(수) 13:30~14:30	윤리 교육	건축사 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조선희 변호사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광주 일가정 양림지원본부 3층 대강당	윤리 교육 1시간	무료	300명

- (3) 교육대상  
① 전문교육 : 건축사(2024년 4월부터 감리를 수행하고자 하는자)  
② 윤리교육 : 건축사
- (4) 출석인정  
- 매 과목당 교육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온라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수강신청 절차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http://www.kiraeb.or.kr)) 접속  
② ID / PW 로 로그인  
③ 수강신청 ⇒ 연계교육 ⇒ 해당 교육 클릭 후 결제
- (6)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og = 기록, 나의 지난 3년을 log하다

## - 로그 건축사사무소 김예은 건축사와의 만남



김예은 건축사

건축문화사랑 3면 '신진에게 듣는다'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순으로 사무소 개설 5년 이내 건축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를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직장에 다니며 '언젠간 사무소를 개소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예상보다 빨리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며 사무소 개소에 대해 고민하던 와중에,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향 지역에 내려와 있던 터라 급작스럽게 공유 사무실 한 칸에 협소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컴퓨터 한 대뿐이었지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3년간 사무실 운영을 하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는데 이번 인터뷰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감사합니다.

###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거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무소의 이름을 정할 때, 건축사로서 저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사람에게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이름이 되길 바랬습니다.

로그(log)라는 단어에는 일지,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이로그(v-log) 역시 나의 일상을 찍어 편집하고 공유하는 내 인생의 일지이자 기록물입니다. 저는 건축주 각자의 삶과 땅의 정체성이 공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로그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이 탄생하였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젊은 건축주 부부의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개인의 삶을 반영한 공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멋진 인테리어 사진이 보일 때마다 수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아왔던 생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생활과는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취향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종 선배 건축사님들께서 로그함을 말씀하시면서 수학을 잘 하나 물으시기도 하거나 로그가 아닌 로고로 알아듣기도 하셔서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흐린 정체성을 가진 저와 로그 건축사사무소이지만, 더 선명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최근 협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속적인 공론화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는 만큼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건축사 업무에서 불편 사항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용승인과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낮은 업무대행 수수료와 짧은 기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수료에 비해 법적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업무대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 기간을 고려한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건축사 외에 다른 꿈이 있으셨나요.

'건축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건축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여러 직업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전 과정을 참여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니 사업가가 되었다가, 현장에서 기 싸움을 하기도,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 아카이빙을 하는 도시의 수집가 또는 역사가가 되기도 하니까요. 돌이켜 보면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다양한 일을 시도하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진 선택지를 대체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건축으로 수렴되긴 하지만요. 최근엔 시골 마을 초입에 세워진 마을 명이 적힌 돌을 찍어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엉뚱하게도 마을이 자연 소멸하면서 언젠가는 무덤 앞 비석처럼 보이지 않을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을 내가 기억해야겠다 싶어서요. 지금껏 개인적인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도 건축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문화적 가능성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욕심이겠지만 더 오랫동안, 더 깊게 사유하는 건축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 Q.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둔화된 성장세와 최근 경기침체, 국제정세 등 불확실성 높은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고 있는 선·후배 건축사님들을 응원하며 우리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빨리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작품 \_ '유유재'



로그 건축사사무소 사무공간



문화기획 활동

## 학생기고 \_ 봉한샘 학생 / 목포대학교 건축학부

### 디자인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두운 분위기의 달동네에 색깔을 입혔더니 범죄율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두침침했던 마을에 밝은 색을 입히고, 골목골목에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니 범죄율이 감소한 것이다. 흥미롭지만 약간은 의아함이 드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범죄예방디자인' 또는 '셉테드' 이라고 한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물리적 환경설계로 범행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

소에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야기를 만들고, 안정성을 높인다. 이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또는 할 사람들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율이 적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해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감시카메라를 늘리고,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나는 건축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그것들을 배우기 위한 삶의 의지와 기회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 뜨락이 많은 미래형 오피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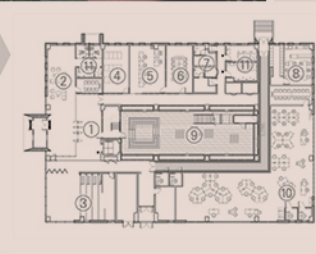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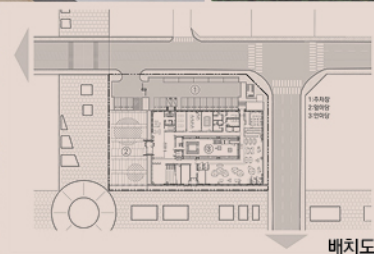
권중곤 건축사 / (유)에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11, 2층  
Tel. 063-273-2944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산단도마4길 87 / 대지면적 : 2,899.40㎡ / 건축면적 : 1,092.95㎡ / 연면적 : 1,737.64㎡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판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으로 '행복 나눔'이라는 사회공헌의 목표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전북에너지서비스(주)」는 익산과 정읍 총 13만 세대에 LNG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과 태양광/스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CNG 충전소를 운영하는 지역 대표 에너지 기업이다. 미래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열린 공간으로서 건립되는 신사옥은, 단순한 개방공간이 아닌 다양한 공동체들이 자연스럽게 상호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다양한 보행 길과 마당들이 내부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앞 뜰, 안 뜰, 바깥 뜰, 하늘 뜰 사이를 오가며 만나고, 일하고, 놀고, 차도 마시고, 책도 읽는, 모두에게 열린 뜨락을 만들어 자유롭고 자연스런 소통이 흐르도록 한다. 뜨락이 있는 미래형 오피스 공간으로서의 「전북에너지서비스(주)」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 교류의 장이 되어 '행복추구'와 '행복동행'이라는 「전북에너지서비스(주)」의 아이덴티티를 고취할 수 있는 [행복거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 1 Hall
- 2 고객라운지
- 3 Grand STEP
- 4 통상실
- 5 상용실
- 6 비상대피실
- 7 휴게실
- 8 Canteen zone
- 9 중정
- 10 사무공간
- 11 화장실



- 1 대표이사실
- 2 회의실
- 3 본부장실
- 4 사무공간
- 5 대회의실
- 6 옥상
- 7 화장실

## 전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방식 운영

### 2월 중 통합심의의 구성 계획을 통해 사업 속도에 추진

전북 전주시가 주택건설에 이어 올해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통합심의가 이뤄질 경우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2월 중으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를 위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북대 한옥사업단, 러시아에 한옥 수출길 열어

### 러시아 학생 한옥 유학 지원, 러시아 소나무 수입 활용

전북대학교가 호주와 미국, 뉴질랜드 등 전세계 10여 개 국가에 이어 러시아에게도 한옥 수출길을 열어 한옥 세계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전북대 한옥사업단은 최근 전북대 한옥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 (주)한옥연과 건축 관련 기업 (주)Eastplus, 러시아 현지법인인 (주)Korcentre 등과 한옥 수출 및 한옥문화진흥, 학생 교류 등

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등 4개 기관은 러시아에 한옥과 한옥마을을 건립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한옥 등 한국형 주거문화도 러시아에 보급키로 했다.

또 전북대는 러시아 학생들 중 한옥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지원하고, 러시아산 소나무를 수입해 전북대 한옥생산 및 교육자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대는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한옥을 러시아에 보급하면서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옥건축 교육을 진출시키는 인력양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러시아에 한옥의 수출과 한옥마을 조성을 통한 한국의 우수한 건축문화 보급뿐 아니라 러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옥 인력양성까지 추진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한옥 건축뿐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주거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 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진안군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부담 20%의 의무 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전라북도,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 추진

전북대표도서관,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문화예술인회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대상...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내 건립 중인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국내외 최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랜드마크화 대상에 오른 건축물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전북대표도서관,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문화예술인회관 등이다.

이에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총 324억원을 투입, 벼루 모양의 전체적인 형상에

한지를 쌓아올린 모습으로 서예를 상징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가 많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표도서관은 덕진구 장동 혁신도시 문화공원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된다.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이미지를 반영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공유, 커뮤니티 형성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문화예술인회관은 덕진공원 인근 전북문화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2,900㎡ 규모로 주변환경과 상생을 위해 높이를 낮추고 경계가 없는 화합의 의미를 담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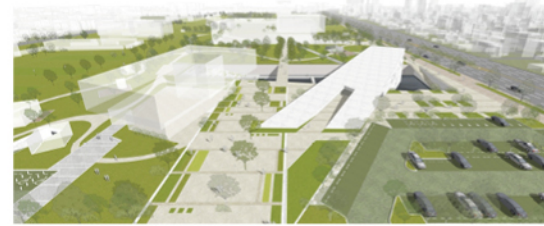
도립국악원은 도시공원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어려움이 많지만 전통 문창살과 가야금의 현을 외벽에 표현해 주변 호수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형 공공건물 디자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 짓거나 조성계획인 공공건축물의 심미성을 최대한 살려 랜드마크화 해야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전주시, '한국문화원형 체험전시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총 사업비 291억을 투입... 2026년 완공 목표



전북 전주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이길환 건축사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외 1인이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국비 204억 원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48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제작지원실 콘텐츠 테스트베드, 콘텐츠 체험·전시실, 콘텐츠 라이브 극장 등이 들어서며, 시는 한민족이 공유하는 전통 문화 VR 등의 실감 콘텐츠를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도심 속 여백의 공간에 수변정원의 풍경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움을 바탕으로 전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부지에 축적된 과거의 기억을 연못을 통해 되돌아보고, 향후 들어설 시립미술관과 연계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조우하는 공간 구성을 제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을 제출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외 1인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시는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고은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건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58
- 이홍택 건축사 / 유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09-14
- 김해규 건축사 / 김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55
- 안희경 건축사 / HEE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21
- 정병권 건축사 / IN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5
- 김진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휴 / 전북 군산시 초촌4길 47

#### •변경(소재지)

- 박세진 건축사 / 세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우암로 50
- 장성호 건축사 / 장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43

#### •결혼

- 정미원 건축사 / 예돈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4년 1월 13일(토)
- 장동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오 / 본인 결혼 - 2024년 1월 20일(토)
- 정태형 건축사 / 태가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4년 2월 3일(토)

#### •부고

- 김정희 건축사 / 단영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4년 1월 15일(월)

**(주)에이치비사옥 및 공장신축공사**

김영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동 2015호  
 Tel. 062-371-2387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1-15번지 / 대지면적 : 11,239.0㎡ / 건축면적 : 2,474.21㎡ / 연면적 : 2,820.47㎡ / 규모 : 지상 2층

**광주건축사회 제18대 회장선거 및 2024년도 감사선거 후보자 최종등록**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30분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 진행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8대 회장선거 후보자 공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8대 회장선거에 다음의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 음

후 보 자				
성명	김 권 수 金 權 壽	조 휴 환 趙 休 煥	강 필 서 姜 泌 瑞	정 태 호 鄭 泰 鎬
기호	1	2	3	4
사진				
사무소명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수전 건축사사무소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영일씨엠 건축사사무소(주)

2024. 2. 5.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4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4년 감사선거에 다음의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 음

후 보 자		
성명	정 원 鄭 院	왕 성 호 王 聖 鎬
기호	1	2
사진		
사무소명	정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다에

2024. 2. 5.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심상봉 위원장)는 지난 2일에 회장선거 및 감사선거 본등록 접수를 마감했다.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김권수 건축사(주)보림 건축사사무소), 기호 2번 조휴환 건축사(수전 건축사사무소), 기호 3번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기호 4번 정태호 건축사(영일씨엠 건축사사무소(주))가 광주건축사회 제18대 회장선거후보자로 등록되어 공고했다.

또한, 2024년 감사선거 기호 추첨에는 기호 1번 정원 건축사(정원 건축사사무소), 기호 2번에는 왕성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다에)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장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2월 16일(금)까지 회장 후보자에게 질의할 공통 질의사항을 접수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 및 서식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456364번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심상봉 위원장)는 “선거인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월 28일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22일에 무등산파크호텔에서 광주건축사회 제18대 회장 및 감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제3차 건축 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오는 2월 26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오는 2월 26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건축 공사감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공사감리 필수 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이라는 주제로 (주)에코 건축사사무소 정창호 건축사의 강의와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하제 건축사사무소 이상열 건축사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3차교육은 지난 1,2차처럼 교육별로 각각 전문교육 시간 2시간으로 인정된다.

끝으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자에 대한 지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우수한 건축 품질, 안전한 건설 현장은 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사감리교육을 수강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 경관계획 중간 보고회 개최**  
 동구만의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설계지침 논의

광주광역시 동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안 수립’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지난 31일 개최했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지역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 경관계획 마련을 위해 ‘2023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와 ‘제1기 동구 경관학교’를 열고 주민·전문가·유관 기관(광주건축사회·한국경관학회 등)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구청 내 관련 부서와 건축사협회, 광주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17개 시가지경관지구로 도로 규모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동구만의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설계지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구분, 건물 전면공간(2m 건축후퇴선)의 보행 공간 전용화, 보행 편의 시설 활용, 건축물 배치·옥외광고물·색채·야간조명 등 법규 준수, 도로축소를 통한 보도 확충 등이다.

동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2기 경관아카데미 개최, 주민공청회, 동구의회 의견 청취, 동구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동구만의 경관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경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동구만의 경관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건축물의 형태는 최대한 단순하게 박스 형태로 계획하였다. 외장재는 조립식판넬로 3가지의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주출입구 부분은 노란색 알미늄쉬트를 활용하여 입구를 상징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경쾌함을 더했다. 건축물의 중심에는 중정을 두어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였으며 외부와 연계된 다양한 외부공간을 디자인하였다. 대마산단 내 회색의 공장건축물 사이에서 공장 같지 않은 건축물로 남기고 싶었다.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발대식 개최**

광주건축사회 제1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는 지난 2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델리하우스에서 답사동호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발대식에는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심상봉, 안길전 전임

회장 외 회원 35여명이 참석했다. 이영문 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답사동호회 2024년 사업 계획 및 목표 등을 논의했다. 끝으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광주건축사회 등록 동호회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문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호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 동구형 해체공사 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

업무 매뉴얼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 기대



광주 동구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와 노후 공유를 위해 '동구형 해체공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유관 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동구형 해체공사 업무 매뉴얼'은 해체공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 서식의 작성부터 해체공사 현장점검 요령, 감리업무, 해체공사 사고사례, 건축물 관리 조례 등을 반영해 일선 업무에 유용하도록 구성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이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의 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공공서비스 전문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관 기관과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숙지해 관내 해체공사장의 무재해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광주 5개 자치구 최초로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해체공사장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안전자문단 활용을 통한 전문화된 민원 서비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교육·배부 등 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제18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최 : 광주건축사회 • 주관 :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 3층

구분	시간	내용
실무 교육	13:30 ~14:30	•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 [강의명 : 건축사 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강사 : 조선희]
토론회	14:30 ~17:05	① 개회식 [국민의례, 참석자(후보자, 선관위원 등) 소개] ② 진행방법 안내 (좌장)      ③ 공통 질의응답 ④ Coffee Break                ⑤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⑥ 방청석 질의응답            ⑦ 후보자 마무리 발언 ⑧ 종합정리 (좌장)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창오 건축사 / (주)더시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A동 604A호
  - 최은정 건축사 / 21세기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마로로 110, 3층
  - 강은이 건축사 / 이유엔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필문대로 220, 2층
  - 송지영 건축사 / 고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연선로 45, 첨단리채비즈타워 A동 413호
- **결혼**
  - 노정만 건축사 / 선호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4년 2월 18일(일)
- **부고**
  - 이형규 건축사 / 대안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4년 1월 23일(화)
  - 김종원 건축사 / 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4년 1월 30일(화)
  - 윤효연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4년 2월 04일(일)
  - 정 열 건축사 / 제이포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4년 2월 08일(목)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4년 2월 12일(월)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자문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 화순군, 건축사 간담회 개최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 마련하기 위해...



전남 화순군은 지난 30일 군민에게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순군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인허가 안

내 서비스”를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선제적인 인허가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준한 인허가 신청서 작성, 인허가 서류 접수 전 군과 사전 협의 등 인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불편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화순군은 인허가 민원이 주로 생계형 민원임을 강조하며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및 건축물 등의 설계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건축사와 개발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허가 관련 다양한 제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남군,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

지난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 군민 편의 제공

전남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지난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 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 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

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끝으로 군 관계자는 “장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전라남도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용승인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사업비 2억 투입

무안군(군수 김산)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되며,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의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 내의 도로 유지보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그 밖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무안군 홈페이지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2월 1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무안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무안군청 건축과장은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나주시, 옛 나주극장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 올해 건축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



옛 나주극장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들어선 나주 지역 최초 극장이다. 극장 안은 2층 구조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1980년대까지 영화 상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인근 광주에 소재한 대형 극장 등에 밀려 문을 닫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사업자가

## 광영의암지구 고○○씨 상가주택

최준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램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12-1, 2층

Tel. 061-761-9272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84번지 / 대지면적 : 291.20㎡ / 건축면적 : 174.61㎡ / 연면적 : 281.64㎡ / 건폐율 : 59.96%

용적률 : 96.72%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STO, 점토타일



건물 전면부를 일부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폐업 후 방치된 곳을 나주시가 매입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한다.

이에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최근 건축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26일 열린 보고회에선 안상현 부시장, 설계 공모 당선자 우지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 방향과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은 방치된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극장 내부에 기록물 전시장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전시장, 식·음료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올해 건축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나주시 관계자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적 보수작업을 끝나치면 문화센터와 함께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신축 보건소 설계안 확정

사업비 300억원 들여... 2025년 착공 목표



전남 담양군은 보건소 이전 신축 건축설계 공모에서 이주경 건축사(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응모작이 최종 선정됐고 밝혔다.

신축 보건소는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1만 7,000여㎡, 총면적 7,00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보건소 이전신축 대상지는 한국대나무박물관 옆 부지 일대로, 담양군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보건소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 천년광장과 연계해 보건 서비스 이외에도 군민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새롭게 지어지는 보건소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2025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31대 회장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라남도건축사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칙 제20조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회 제31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화)부터 2월 19일(월) 오후 5시까지이며, 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 후보자 추천서(20인 이상), 선거공보 원고, 기탁금을 공고일 기준까지 전라남도건축사회 사무국으로 제출 후 2월 20일(화) 오후 1시에 기호 추첨을 통해 23일(금)에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회장 및 감사선거는 제58회 정기총회 3월 15일(금)에 진행된다.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류 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 전남 순천시 금곡길 11, 301호
- 김성규 건축사 / 키움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7, 106동 105호
- 문 혁 건축사 / 예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906
- 최윤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해 / 전남 광양시 관양읍 서천2길 12-1, 2층

#### •전입

- 김성일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원건축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902, 1동 101호

#### •변경(형태)

- 장부근 건축사 / 도헌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26, 4층

#### •변경(소재지)

- 정운기 건축사 / (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60, 102동 902호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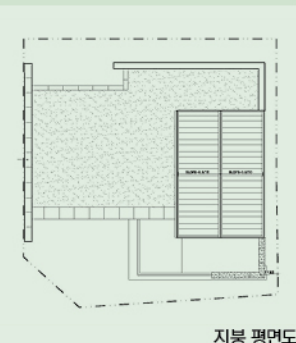
www.bs-base.co.kr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이 프로젝트는 숙제가 많았다. 경사진 대지, 두 도로에 접한 코너대지, 1층은 건축주가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2층은 건축주의 주거공간, 대지와 건물의 규모에 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꽤 많았다.

가장 큰 숙제는 경사지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대지의 표고차가 2m 가까이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층과 2층의 용도가 다른 것은 경사지에서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자연스레 상가와 주택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였고, 각 출입에 정면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갔고, 건축주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건축주가 가져온 어려운 숙제를 잘 풀 만큼 건축주는 지금도 만날 때 마다 항상 고맙다고 한다. 이만큼 좋은 결과가 또 어디 있을까.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김재록 후보 당선

오는 3월을 취임식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직무수행 예정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4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기호 2번 김재록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회원 직선제선거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이틀간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선거인 수 1만6,137명 중 1만 3,950명이 투표해 역대 최고 투표

율인 86.45%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 결과 5,755표(41.25%)의 지지를 얻은 기호 2번 김재록 후보가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

김재록 당선자는 1959년생으로 건국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주)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력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담당 등을 역임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당선된 김재록 당선자는 회장 임기 3년 단임제, 민간대가기준 제정 및 업역 확대, 건축사의 업역 확대 및 정상화,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경영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회원의 목소리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회원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협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18일 당선증을 수여받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 3년 동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사례집 개정 배포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해체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그에 따른 도심 재개발로 인해 해체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2월 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을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체계획서 작성 사례집 발간, 감리자 교육 확대 등 해체계획서 부실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체계획서가 부실 작성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아 전면 개편했다. 건축물 주변조사 등 사전 준비단계부터, 장비 이동 계획과 가시시설 설치 계획, 해체공법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대책과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계획도 포함된다. 사례집도 해체계획서 작성 우수사례와 관리원의 주요 검토 사례 등을 반영해 개정됐다.

관리원은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에 파일로 게시했다.

### 행복청, 국내 최초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 착공

총사업비 1,800억 투입...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10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 데 이어 국내 시공

사례가 적은 고난이도의 적층형 철골구조로 설계에 따라 품질향상과 안전강화 등

책임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스페인의 건축가인 설계자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추진현황, 기술제안 주요내용 및 시공일정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400.73㎡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도시건축전시공간,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이 들어서며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재현해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이다.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시공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시·건축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건축초고위과정' 제28기 수강생 모집

국가전문자격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기업체 국가전문자격자(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등), CEO 및 임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건축초고위과정' 제28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글로벌건축초고위과정은 리더십, 자산설계, 한옥의 의미와 이해, 내 집짓기 시행착오 줄이는 법 등 건축과 문화, 경영을 연계하는 커리큘럼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경영인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3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16주간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는 서울건축사회(02-2088-5210)로 하면 된다.

### 환경부, 전국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기간 1~12월... 향후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 사업에 반영

환경부에 따르면 주택, 창고, 축사 등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실태조사는 환경부의 직접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사가 동시 진행된다. 각 지자체 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보완하고, 건축물대상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석면건축물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 간 협업체를 구성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거나 누락된 건축물이 많은 지자체 1~2곳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활용한다.

끝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박용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전담기자** 김종문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김화진, 장기섭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구독료인금액좌  
 • 하단광고 : 400,000원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하단1/2광고 : 250,000원 •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 건립공사 건축 설계공모

일과 휴식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추구하는 도시청년 유치를 위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단지를 건립하고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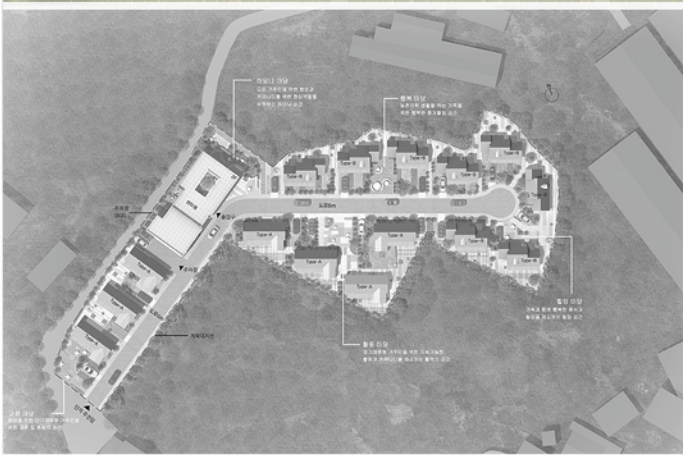
심사위원 : 김종선(현대건축), 최재영(광주대), 최인주(광주시교육청), 이수용(더반건축), 길종일(더시선건축)

- 대지위치 :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291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6,269.00㎡
- 연 면 적 : 1,600.00㎡(±5% 범위)
- 용 도 :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 규 모 : 센터동 지상 1층, 주택동 15동
- 예정공사비 : 5,724,137천원

당 선 작 : 이선 건축사사무소  
 입상작-1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마노아르떼  
 입상작-2 : 건축사사무소 터틀  
 입상작-3 : 건축사사무소 에이피엠  
 \* 입상작-1, 입상작-3 자료 미제출

**당선작**

선민철 건축사 / 이선 건축사사무소



방향 01 자연환경과 건축경관

자연환경과 경관이 매우 수려한 명암으로 건축 용지시세를 형성



방향 02 소통의 축

건축과 건축, 건축과 외부공간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자연과 소통이 가능한 축을 형성



방향 03 다양한 외부공간

거주 구역내 단위세대별로 경관을 균등하게 확보하고, 각 구역마다 소통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여장을 구성



최이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터틀 **입상작-2**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니켈세케이 미래를 짓다

미야자와 히로시 (저) / 정병균, 김미화 (역) / 도서출판대가 / 2023. 05. 15.

‘도쿄 타워’, ‘도쿄 돐’, ‘도쿄 스카이 트리’. 일단 이 세 개의 건축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질문에는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세 건축물의 공통점은 바로 ‘니켈세케이’라고 하는 ‘조직 설계 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실현한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니켈세케이’는 1950년도에 창업한 일본의 건축 및 설계 기업으로 201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축 회사로 선정되었다. 현재 약 3,000명의 직원이 있고, 2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니켈 회사가 참여한 한국의 건축물에는 포스코 타워가 있다.

저자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 설계’의 존재와, 니켈세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조직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화보 사진으로 보는 니켈의 120년 역사를 시작으로 조직 설계의 두 간판 스타인 토모히코와 히로야키의 고뇌로 디자인 전략을 넘어서 비전을 도출하며 7대 불가사의 점진적 알고리즘으로 니켈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마인드와 사내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 니켈의 디자인 지침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설계사무소인 니켈세케이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규모가 큰 회사는 ‘팀의 조직력’이 중요하다. 니켈세케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다루며 그들은 디자인 비전(Design vision), 디자인 골즈(Design Goals), 디자인 챌린지(Design challenge)라는 혁신적인 디자인·경영 프로세스를 창안해 120년 역사를 넘어 그들만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설계사무소가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책인 것 같다. 이 책으로 인하여 ‘니켈’이라는 건축그룹의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됐으며 조직 설계 사무소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조직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 소통 등을 배울 수 있게 만든 도서였다.

‘니켈세케이 미래를 짓다’라는 책은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커튼이 드리운 호텔방 창문

프랑스 파리 / 2023년 8월 19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인생의 여정



자연은 말없이 와서  
소리 없이 떠나간다

계절의 바뀔 때도  
때가 되면 양보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떠나가니

우리의 삶도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손에 쥐듯  
늙음이 오지 않을 듯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외해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홀로 세상에 나왔다가  
홀로 가는 삶  
가끔 혼자 있다고 외롭지 말자

모두가 떠나는 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나 혼자뿐이니  
어차피 홀로 가는 인생  
혼자 있다고 슬퍼하지 말자

살아온 과정  
힘들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한번 왔다가는 세상  
즐거웠다고 노래하는  
그날이 되기를 기도하자.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동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삼성 자이언츠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면적: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면적: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차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원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한 확보한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사기간  
단축

구조기술사협회  
기술인증서보유  
대상업체 7건(100%)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산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